칼 럼

장 기 채 주 필

천지에 순응한 노년의 지혜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1501~1570)은 하루 두 끼만 먹었다. 반찬도 무, 가지, 미역뿐일 때가 많았다. 농암 이현보(1467~1555)는 임금이 수십 번이나 불렀지만 한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요즘엔 노인부양세태를 화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느니, 노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느니,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느니, 이러쿵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씁쓸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의 대가족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은 양적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만 지혜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 짧은 여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군사력으로 권력을 얻은 고대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솔론에게 "대체 무얼 믿고 자기에게 그토록 대담하게 반대하느냐"고 물었을 때 솔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노년을 믿고!" 그 또한 노년의 지혜 아니겠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를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듦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왔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해야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 굽은 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경운기의 경우 구동벨트를 덮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전도 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고, 야간 운행 시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6-2018) 농기계사고는, 총 3002건이 발생해 이중 191명이 사망하고 712명이 부상당했다.

시기적으로는 파종기인 봄과 수확기인 가을(5월~10월) 사이에 1917건(63.9%)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형 농기계 사고가 1392건(46.4%), 작업 중 깔리거나 정비·점검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고 감기는 사고가 1610건(56.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고 굽은 농로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보조자로 하여금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농기계 정비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전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을 정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운기는 엔진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면에 야광반사판이나 야광스티커 등을 부착해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안전센터장

社 說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돼야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3㎞로 나타났다니 놀랍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차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로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비석거리→솜반천)에서는 시속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시속 172㎞나 초과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31㎞로 달린 외제차가 각각 적발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려 시속 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215만1천여건으로 2014년(844만5천여건)보다 43%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삼거리(화성시청→팔탄면사무소)로 적발 건수는 1만1천717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8천504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너편 도로(8천10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내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연간 140만~160만여건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155만7천여건을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 빈발 지역에서는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도 해봐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 장·발 행 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